

# 사죄 한마디 없이 돌아간 전두환, 광주서 또 볼 수 있을까

### 4월 8일 재판 불출석 확실 선고재판도 각종 핑계 안 올 듯 광주재판후 병원 응급실 들러 집 나선지 12시간만에 귀가

5·18민중항쟁 이후 39년 만에 광주법정에 출석한 전두환(88)씨가 또다시 광주를 방문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354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재판은 검사와 변호인 간 증거와 쟁점 정리를 위한 공판준비기일이다. 형사재판은 모두절차와 사실심리, 판결선고 순으로 구성되며 피고인은 모든 절차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7월 1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도 전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4월 재판도 공판준비기일이라는 점에서 전씨의 불참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전씨측 변호인도 지난 11일 재판에서 담당 판사가 전씨의 다음 출석여부를 묻자, 4월 8일을 포함한 다음 재판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방청객 사이에서는 "지금 재판을 진행하자", "다시는 안 오겠다는 말이 없느냐"며 항의의 섞인 말들이 나오기도 했다.

전씨는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에 출석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마저도 고령인 점과 건강상태, 주거지와 원거리인

점 등을 내세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가 불출석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선고공판기일 만큼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사건, 공소기각이 명백한 사건 등 경미한 사안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 사건에서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출석하도록 돼 있다.

전씨 재판부는 "매주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2주에 한 번 또는 일정 기간을 잡아 '집중 심리'를 하겠다"며 속도감 있게 재판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전씨는 재판이 끝나고 귀가 도중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전씨는 서울 연희동 집으로 향하던 지난 11일 오후 8시18분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들른 뒤 8시47분께 나왔다.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단순 진찰이 아닌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몸이 불편하다고 해 병원에 들렀다"며 "단순 (의사) 면담이나 진찰만 받은 게 아니라 치료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전씨는 이날 집을 나선지 12시간20여분 만인 오후 8시53분께 귀가했다. 당시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가 차에서 내리자 한 남성이 "전두환을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지만 전씨 내외는 아무런 말 없이 조용히 자택 안으로 모습을 감췄다. 전씨는 다소 피곤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으나 주변의 부축 없이 걸어서 자택으로 들어갔다.



전두환 씨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지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펠렌 회고록에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형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문 대통령과 눈물의 포옹 '5·18 등이' 김소형씨 민주당 '한반도 새100년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로의 포옹을 했던 '5·18 등이' 김소형 씨가 더불어민주당 민간 자문위원을 맡는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한반도 새100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한반도 새100년위원회는 한반도의 평화, 민주주의 발전을 목표로 내걸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 조직이다. 3·1 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올해 초부터 출범을 준비했다. 이해찬 대표가 위원장, 최고위원 전원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당 소속 의원 전원과 사·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사·도 의원 등도 모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외부위원 48명으로 구성된 '국민100년위원회'도 만들 예정인데 이 가운데 김소형씨가 위촉됐다. 자문위원단은 현대사의 굴곡을 상징하는 인물로 꾸러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소형씨는 2017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로의 포옹을 했던 '5·18 등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커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5월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유가족 대표로 '유족의 편지'를 읽은 인물이다. 1980년 5월18일 태어난 김씨는 이날 태어난 자신을 보기 위해 병원으로 오던 아버지 김재평씨가 계명군 총탄에 맞고 사망한 가슴 아픈 사연을 추념사를 통해 들려줬다. 당시 김 씨의 추념사를 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 예고 없이 무대 위로 나와 김씨를 포옹하며 위로하던 장면은 많은 국민의 눈시울을 적셨다. 자문위원회에는 김씨 외에도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를 비롯해 독립운동 후손, 6·25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 등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이름을 올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세월호에서 나온 동물뼈, 인부들이 버린 음식물쓰레기였다

### 감사원 "잠수사들 식사후 투기" "추가 인양비용 위법·부당 없어"

세월호 수색 과정에서 선체 내에서 발견된 수천점의 동물뼈 대부분이 잠수부 등 인부들이 먹고 버린 음식물쓰레기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선체 인양이 장기화하면서 미수습자가 유골 형태로 발견될 것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인양업체와 감독 당국인 해양수산부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요구로 이뤄진 세월호 인양 관련 감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사원 검토 결과,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로 추정되는 돼지·닭뼈 등 동물뼈 6705점(세월호 내부 3880점, 외부 2825점)이 미수

습자의 유골 144점과 같이 수거됐다. 특히 세월호 외부에서 발견된 동물뼈 2825점의 82%에 해당하는 2318점이 세월호 인양 후 2차 수중수색 중 선체가 누운 자리(뿔)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수거된 반면 미수습자 유해 유실방지망 전체 구역에서는 507점밖에 수거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를 근거로 동물뼈들이 세월호 침몰지점의 수면 위에서 아래로 버려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양업체인 상하이셀비지의 당시 작업총괄자로부터 일부 음식물쓰레기를 해양에 투기하였다는 진술 영상을 확인했다. 사고 당시 세월호에는 배로 남을 수 있는 음식이나 육류 등이 일절 없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3개월 후인 2014년 7월부

터 11월까지 4개월간 구조와 시신 수습을 위해 투입된 잠수 인력에서 식사로 소·돼지·닭 등 육류가 제공됐고 이들은 식사 후 바지선 갑판 등에서 세월호 침몰지역 해양에 음식물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인양작업 전인 2015년 9~11월 유실방지망을 선체 창문 등에 설치해 선체 내에 동물뼈 등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뒤집는 증거들이 나온 것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해양에 배출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해수부는 수색·구조 활동이 이뤄진 2014년 4월 말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6개월여간 음식물쓰레기 해양 투기를 방지했다. 상하이셀비지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세월호 인양작업을 위해 중국에서 12척의 작업선을 출항시키면서 식자재 총 21만9천936kg 상당을 공급했으며, 추가로 진도군의 한 회사에서 최소 950만원 상당의 돼지뼈 등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음식물쓰레기가 해양에 무단 투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구하고, 해양 수색·구조활동 및 작업 시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이나 매뉴얼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해수부의 세월호 추가 인양 비용 329억원 결정 근거와 지급 특약 체결에 대해선 그 내용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수부가 인양공법 변경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고의로 인양을 지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가까운 무안에서 출발해요~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쭉~우~욱~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DdM 조이투어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 무안 ↔ 기타큐슈 사랑~사랑 봄꽃 가득한 3,4월에 떠나요♥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TW티웨이항공 매주 화/금/일 출발**

오후출발(화,금,일) 무안(20:20) → 기타큐슈(21:30) / 기타큐슈(23:00) → 무안(00:15)

- ◆ 기타큐슈, 벳부, 유후인 2박3일 [정통] 499,000원~ / [풍격] 539,000원
- ◆ 기타큐슈, 벳부, 유후인 3박4일 [정통] 699,000원~ / [풍격] 759,000원

**무안에서 떠나는 해외여행 패키지!!**

기타큐슈/오이타/오사카/동경/다낭/방콕/세부

코타키나발루/보라카이/대만/마카오/상해/블라디보스톡

대표전화 1522-1901

**무안 ↔ 기타큐슈 ↔ 오키나와**

기타큐슈와 오키나와를 한번에!!

- ◆ [정통] 3박 4일 899,000원 / [풍격] 3박 4일 999,000원
- ◆ 3박 4일 에어텔(항공+호텔+렌트카) 599,000원~

\*예약시점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출항 ↔ 대마도 매일출발**

[4월 ~ 5월 대마도 매일 출발]

- ◆ 오션플라워호 부산출항 1박 2일 139,000원~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출발

- ◆ [노팁,노음선] 스펀,단수이,야류,지우편 699,000원~
- ◆ [고풍격] 화련,테로각,지우편,야류 699,000원~

**무안 ↔ 보라카이 3/20일 부터 출발**

[수요일 출발] 3박 4일 419,000원~  
[토요일 출발] 4박 5일 469,000원~

**무안 ↔ 동경 매일출발 일본의 수도 도쿄를 무안에서!**

★최저모객인원 7명 출발보장★

- ◆ [정통] 집중모객 4/11, 21, 5/12, 19 출발 동경,하코네 3일 취항특가!! 679,000원~
- ◆ [정통] 동경,하코네 3일(디즈니랜드선택관광) 749,000원~
- ◆ [정통] 동경,하코네 4일 889,000원~

**무안 ↔ 방콕·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수,목(3박5일)/토,일(4박6일)]

- ◆ [실속] 549,000원~ ◆ [풍격] 849,000원~

**무안 ↔ 다낭(제주항공&베트남항공)**

매주 화,목,금,토,일 출발 3박4일

[바나팩] 599,000원~ / [후에풍격팩] 699,000원~  
[노팁&노음선] 849,000원~

**무안 ↔ 세부(제주항공)**

월요일 출발(2박4일) / 화,수,금,토 출발(3박5일)

[세미팩] 429,000원~ / [풍격팩] 699,000원~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출발

- ◆ [노팁,노음선] 스펀,단수이,야류,지우편 699,000원~
- ◆ [고풍격] 화련,테로각,지우편,야류 699,000원~

**무안 ↔ 제주항공**

월요일 출발(2박4일) / 화,수,금,토 출발(3박5일)

[세미팩] 429,000원~ / [풍격팩] 699,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공회조건 :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차별금 가입(해외상품) : 19원, 국내상품 52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 및 부대 비용,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철, 전철버스 / 전 지역 \* 상거요금 : 항공 및 항공료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보험 가입 업체 \* 예약시 개인(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없음.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종 배차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